



돼지콜레라와 돈단독,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자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돼지콜레라 청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단했던 백신접종이 금년 3월부터의 전국적인 발병으로 인해 다시 재개되었다.

또한 돈단독의 경우 보통 돼지콜레라와 모돈의 백신접종시기를 맞추어 동시에 실시를 하였는데 한동안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 중단되면서 돈단독 백신접종까지 생략한 농장이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돈단독의 발생률도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다시 실시하며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이 두 질병을 함께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1. 돼지콜레라와 돈단독은 어떤 질병인가?

가. 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전염병으로 일단 감수성 돼지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

될 경우에는 거의 100% 이환이 되고 결국은 폐사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물론 돼지의 저항력과 바이러스의 독력에 따라 증상 및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과거 발생 농장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면역력이 없는 돈군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폐사 손실을 보았다.(도폐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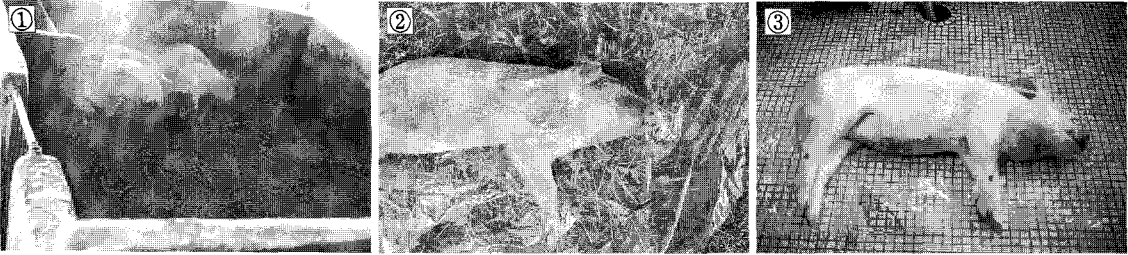
일령 구분없이 자돈에서 성돈까지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염된 경우 거의 폐사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다만 돼지 이외의 동물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주로 감염돼지의 분변, 오줌, 눈물, 콧물 등을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 경구감염이 되며 사람이나 동물 또는 차량, 기구같은 기계적인 매개체로 인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나. 돈단독

돈 단독은 돈 단독균 (Erysipelothrix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① :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몸에서 열을 내면서 오한을 느껴 낮에도 서로 몰려 있다.
 ② : 하복부에 나타난 청색증
 ③ : 돼지콜레라로 인해 폐사된 자돈. 목 부위와 하복부에 청색증이 보인다. <슬라이드 제공 : 한국엘랑요동물약품(주) 예재길 상무>

rhusiopathiae)의 감염에 의한 전염성 질병이다. 돈단독균은 증상이 없는 농장이라도 50%이상의 돼지의 편도에 잠복하고 있으며 보균돈은 분변과 오줌, 그리고 침을 통해 돈단독균을 배설하게 되는데 주로 분변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돈단독균은 피부의 상처 또는 위장관벽을 통해 혈류로 유입되며 패혈증을 일으키게 된다. 잠복기는 24~48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며 가장 감수성이 있는 일령은 육성돈, 백신접종이 안된 후보돈, 그리고 4산차까지의 모돈이다.

모돈의 경우 급성시는 특별한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기도 하며 고열(40℃)과 유산, 미이라 태아 분만 및 불임 등의 번식장애가 두드러진다. 피부에는 돌출상 병변이 나타나고 관절염이 있게 되면 일어서기를 꺼린다.

웅돈에 감염시 고열로 인해 정액의 질이 낮아져 불임 또는 산자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육성비육돈에서는 급작폐사, 고열(40℃~42℃), 피부병변을 볼 수 있으며 관절염으로 다리관절이 부으며 보행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돈단독은 초기에 치료하면 별 피해없이 치료가 가능하므로 초기발견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돼지콜레라와 돈단독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 자체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외부에서의 돼지구입은 후보 종돈 말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청정농장에서 구입) 사육내력을 전혀 모르는 돼지를 떨이로 구입해 오는 것은 돈콜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도입돈은 최소 3주간 격리 사육한다.

■ 외부 양돈장 출입은 가급적 삼간다.

■ 출하차량 및 돈분 수거차량의 출입시 수세 및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소독을 실시한다.

■ 출하차량이 농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출하대는 가급적 농장 울타리에 설치한다.

■ 외부 장비의 출입시에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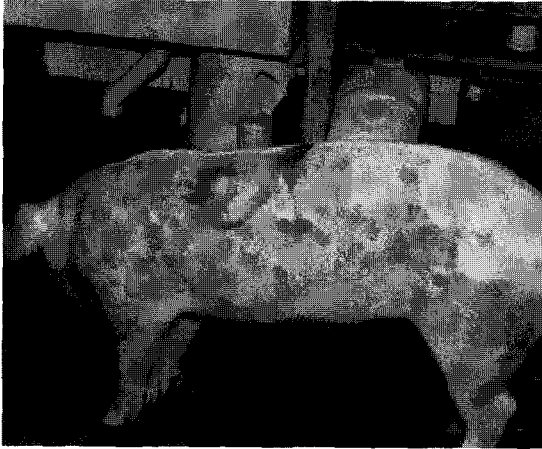
■ 중고 기자재 구입은 가급적 자제한다.

■ 농장외부의 동물 출입을 차단한다.

■ 폐사돈의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하며 방치하거나 농장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정기적인 혈청검사로 돈군의 상태를 감

〈돈단독 임상증상〉



▲급성형 발증돈 피부에 있어서 담홍색 마름모꼴의 구진



▲관절염형 발증돈에 있어서 견좌자세

시한다.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진을 막기 위해 전문수의사 입회 하에 하도록 한다.

■농장 진입로는 단일화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철저히 한다.

■농장 진입로, 출하대 주변, 그리고 각 돈사 입구에 생석회를 평당 1~1.5kg 정도 도포한다.

■농장 출입차량, 특히 출하차량의 바퀴 소독 및 차체 분무소독.

■출하 후 돈사 내외부 및 출하대 부근, 농장 진입로에 대한 청소와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인원에 대한 소독시설을 농장 입구에 설치하고 방역복 및 장화 제공.

■농장내 인원도 외출 후에는 외부인과 동일하게 소독 실시.

■후보돈 도입시 차량소독 뿐만 아니라 돈체 분무소독 실시.

■1일 1회 돈사 내외부 소독 실시.

3. 돈단독의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들

돈단독은 세균성 질병으로서 발병시에는 특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다음의 발병 촉진 요인들을 이해하면 돈단독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습하고 지저분한 돈사

■잔반 사료 급여

■울인올아웃이 안되는 돈사(수세, 소독의 미흡)

■돈단독균에 오염된 음수 시설

■PRRS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또한 돈단독의 경우 보통

돼지콜레라와 모돈의 백신접종시기를

맞추어 동시에 실시를 하였는데 한동안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 중단되면서 돈단독

백신접종까지 생략한 농장이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돈단독의 발생률도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다시 실시하며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이 두 질병을 함께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 분변을 통한 지속적인 감염.
- 이동시 심한 스트레스
- 기온의 급변 및 여름철의 더운 기후
- 사료의 급변

4. 치료

가. 돈단독

페니실린은 돈단독균에 대해 좋은 효과를 나타내므로 치료약제 선택시 1순위로 선택되어진다. 그밖에 테트라사이클린 등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급성발병돈에 대한 치료는 체중 kg당 30만 단위의 페니실린을 1일 2회 근육 주사하며 3일간 치료한다. 급성이 아닌 경우에는 지속성 페니실린을 2일 간격으로 1~2회 근육 주사한다. 보통 이와 같은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임상적으로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돈단독이 발병했을 경우 돈군치료 방법으로 페녹시메틸페니실린을 사료 톤당 200g 비율로 첨가하여 10~14일간 투약하면 효과가 좋다.(테트라사이클린을 사료 톤당 500g 비율로 첨가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돈단독이 발병한 돈사 및 돈방은 수세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약제 투약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병할 경우 백신접종을 하도록 한다.(1차 8주령, 2차 10~12주령)

나. 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치료법은 없다. 따라서 예방적 관리에 의해서

발병을 억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5. 백신접종

가. 모돈

■ 돼지콜레라 : 연 1회 접종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짝수 산차 분만 2주 후에 접종하는데 장기 사고돈의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돈단독 : 연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한다. 매 분만시 접종을 한다. 돼지콜레라와 마찬가지로 분만 2주 후에 접종이 권장된다.

나. 웅돈

- 돼지콜레라는 봄철에 1회 일괄 접종한다.
- 돈단독은 봄, 가을 연 2회 접종한다.

다. 후보돈

후보모돈 및 후보웅돈 모두 선발 후 1주일 만에 동시접종을 한다.

라. 자돈

■ 돼지콜레라 : 생후 40일령 1차, 60일령 2차 접종한다.

■ 돈단독 : 생후 60일령에 1차(돼지콜레라와 보통 동시접종), 2차 접종은 80~100일령 사이에 실시한다. 그러나 돈단독의 2차 접종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평상시에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돈단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의 경우는 반드시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어야 한다. **양돈**